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pm
- 주일 학교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 주일 성경공부 Sunday Bible Study / Sunday 11:00 am
- 금요 찬양예배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 경건회 Early Morning Devotion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주간 성경 공부 Bible Study / Tuesday 8:00 pm (zoom)
- 일대일 제자 훈련 Discipleship Class / Monday 10:00 am

##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

2023년 7월 30일

복음의 증인된 달  
선교 주간

## 건강한 믿음 성장의 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하나님 앞으로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경배와 찬양: 찬양팀과 함께

예배 기도 구은강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 말씀

창세기 13:1-12 (구약 15쪽)

"어른다운 어른 아브람"

말씀 선포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찬송 595장 나 말은 본분은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헌 금 최선윤 / 유병하 집사

봉헌 찬송 213장 "나의 보화 드리니"(4절)

삶과 세상 속으로

찬 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축복 기도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목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 양 과 기 도

말씀 사무엘상 8:4-22

왕을 세우려는 이스라엘

그런가 하면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하신다. 되돌아보라는 것이다. 인생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아프고 괴로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아픈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지를 민감하게 살피보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삶에 때로 곤고한 날을 주시는 이유이다. 이런 이유로 험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면, 기도할 때마다 테널 없는 인생이 되게 하달라고, 밝은 태양만 보이게 하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인생의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역까지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 테널을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고마운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테널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때때로 주어지는 인생의 테널을 '잘 통과하는 법'을 배우게 하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이찬수"

포기하지 마  
다시 해보자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 바로 제 마음과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손해 보려 하지 않고 나의 유익만을 구했습니다. 은혜 받으려 하는 일에도 제 자신만 챙겼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기꺼이 손해 보고 양보하면서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소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이, 하나같이 살기 참 힘들다는 말을 쏟아 놓는 것이다.

“목사님, 이것도 힘듭니다. 저것도 아픕니다.”

아직 젊은 청년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기성세대보다 마음이 여리다. 그래서 상처도 잘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격려와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날, 이런 저런 일들로 아파하는 청년들을 격려하며 내가 해준 이야기가 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터널이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터널을 뚫어서 기차길을 많이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려면 꽤 많은 터널을 지나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서울역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하나님, 오늘은 터널 만나지 않게 인도하여주시옵소서. 이 기차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터널을 만나도 저는 절대로 터널을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산에 안 가겠다는 소리다. 부산역으로 가려면 누구나 예외 없이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인생에서 터널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다.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이 말씀을 떠올린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도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전 7:14**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왜 그러셨는가? 형통한 날에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곤고한 날에는 지난날을 도돌아보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형통한 날에는 최선을 다해 기쁨을 드러내고,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형통한 날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이다.

섬김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점심 친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역 / 행사

8월 도약의 달

2023년 하반기 말씀과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2023 주제 말씀 :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2023 표어 : 성장하는 교회

- 1. 선교 주일**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사역자들과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하반기/8번째 해 사역** 말씀과 기도생활을 새롭게 하며, 8번째 해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나아갑시다.
- 3. 성경1독 운동** 1년간 진행하는 영성훈련입니다. 8월 부터 시작합니다.
- 4. 여름방학** 자녀들이 건강하고 유용하게 방학을 지내도록기도합니다.
- 5. 기도** 부모님과 어른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 6. 연합 금요찬양** 8월 4일 금요 찬양예배는 살렘장로교회에서 함께 드립니다. 4220 Commercial Way, Glenview

교우 동정 유명원 성도 손녀 Ella 돌 잔치

7월 / 8월 사역

선교 주간(23-29) & 선교 주일(30)

만남/나눔 주간(8/6-12)

성장/성숙 주간(8/13-19)

소금/빛 된 주간(8/20-26)

선교 주간(8/27-9/2)

생일축하

오정은(14)

이광호(14)

구은강(28)

한 주간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 미가 6장 8절

**말씀 개요** 창세기 13:1-12  
**어른다운 어른 아브람**

아브람은 어려움을 겪으며, 먼저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성숙한 어른으로 변화했다.

아브람은 첫째, 화목을 깨지 않고, 둘째, 지혜롭게, 셋째 믿음과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 나갔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나누며,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길이다.

**말씀 요약**

양보는 분명 미덕이다.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이의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아브람은 어려움 앞에서 양보하고 손해를 자청했다.

아브람은 롯을 양자로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했으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함께 살 수 없게 됐다. 번성하는 가축으로 인해 양측의 목자들이 다투게 됐기 때문이었다. 이때 아브람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고 롯에게 양보했다.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화목하자. 아브람은 다툼을 피하고 화목을 추구했다. 아브람은 롯에게 상호 간에 다투지 않기를 제안했다. 감정에 휘둘려 편을 나누지 않고, 욕심에 묶여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지혜롭게 어려움을 풀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돼야 한다.

둘째, 지혜롭게 행하자. 아브람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문제의 근원을 해결했다. 갈등의 근원이 목초지 부족임을 알고 아브람과 롯은 목초지를 넓혀나갔다. 문제를 지혜롭게 파악해야 해결이 된다.

셋째, 믿음과 사랑으로 살자. 아브람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결단했고, 사랑으로 희생과 인내하는 길을 걸었다. 삶에서 지혜롭게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았다면, 이제는 믿음과 사랑으로 은혜롭게 살아갈 때이다.

어른다운 성숙됨을 넘어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자.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가. 먼저 양보하고, 먼저 손해를 감수하는 데 까지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 이웃과 나눌 하나님의 복은 더해진다.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이 바로 이것이다.

1. 2023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열매 맺도록
2. 모든 성도가 삶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성훈련하도록
3. 섬기는 목회자의 강건함과 영적 능력을 위해
4. 연로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5. 자녀들의 영적 성장과 Youth Ministry의 자리매김을 위해
6. Oikos 가정사역을 통해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7. 선교 사역지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특히, 새로운 선교/구제협력을 시작하는 튀르키예 박진란 선교사와 사역을 위해

**예배 섬김이**

7월 30일 구 은 강 집사

**주일 기도 인도**

8월 6일 김 훈 태 집사

13일 최 선 윤 집사

20일 구 민 집사

**주일 헌금 위원**

7월 30일 최 선 윤 / 유 병 하 집사

8월 6일 유 병 하 / 최 선 윤 집사

13일 최 내 권 / 구 은 강 집사

20일 구 은 강 / 최 내 권 집사

**주일 안내**

7월 김 훈 태 집사

8월 구 민 집사

**성경공부 / 기도 모임**

주 일 오전 11:00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약속

월요일 오전 10:00 교회 성장

화요일 저녁 8:00 인물 성경공부/Zoom

**섬기는 사역자**

지도 목사(Lead Pastor) 김성배 목사

찬양 인도자(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교육전도사(Youth Pastor) Jacob Kim 전도사